



해돋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 서구 #공과금,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관저동의 허파인 해돋마을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합니다.

해돋마을어린이도서관은 마을사람들의 자원 활동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 마을사람의 바른 성장, 마을 사람들의 소통·화합의 장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돋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이름은 창가로 햇빛이 밝고 환하게 잘 들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해냈습니다.

이름과 같이 해돋마을어린이도서관은 관저동에서 미래를 향해 밝은 꿈을 꾸는 어린이들에게 찬란한 빛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아이들 영당이나 이마를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도서관 출입문이 아이들과 부모님 영당을 자꾸만 세계 밀어서 신발을 벗다가도 넘어지고, 영당이나 이마도 다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일부 마을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다보니 현관문 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입장에서 긴급지원119사업 선정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현관문은 안전하게 개폐되어 누구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다운 안전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 도서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관 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공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 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했던 도서관 전화기, 노후화되어 도서관 업무와 총무를 겸해서 하기가 힘들었던 컴퓨터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지적인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도서관의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마을에서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지적·문화적인 충족을 위한 홍보작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와 마을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서관의 활발한 교육문화적인 활동에 배고파했는데 긴급지원119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한 이러한 지원들이 좀 더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데 지속적이고 폭넓은 영역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내실이 튼튼한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마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도서관의 어려움과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을 여러 번 호소해 봤지만 긴급지원119사업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이 문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어서 긴급지원119사업으로 보수한 도서관문을 볼 때면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상가들에 상응하게 부과되는 관리비 때문에 도서관 봉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에게 긴급지원119사업의 관리비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 됩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후원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이는 긴급지원119사업과 같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지원이 계속해서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런 좋은 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쉽고 절실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지원자들이 지속적으로 있길 바랍니다.

2018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내실을 더더욱 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일정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2018년도를 알차게 계획해야하는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홍보와 도서관의 자체사업을 통해 마을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참여하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이 마을사람들이 키워내는 교육문화적인 공간임을 인지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봉사가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진정 '작은도서관의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